

# 서동축제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익산시, 역·터미널·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 등 노선 운행... 서동공원 승용차 주차 금지

익산시가 주차 걱정 없이 쉽게 서동 축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 중심으로 운행한다.

시는 무료 셔틀버스를 지난해보다 1.5배 증차하고 노선을 확충해 축제 현장의 교통난을 전격 해소하고 시민과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셔틀버스는 지난해보다 17대 증차돼 총 5개 노선 50대가 투입된다. 시는 축제 기간인 15일부터 17일까지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방문객 교통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축제 전일인 14일부터 서동축제장인 금마 서동공원 내 주차장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주차장은 승차 장소로 이용한다.

무료 셔틀버스는 익산역, 터미널,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 미륵사지, 보석 박물관에서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탑승 가능하다.

지난해 셔틀버스 이용이 가장 많아 대기 시간이 길었던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에 셔틀버스를 추가 배치하고 상시 대기시켜 탑승 인원이 많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셔틀버스를 활용해 서동축제와

주요 관광지 연계성을 높였다.

대표 관광지 미륵사지와 보석박물관을 관광하고 윈스타로 축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미륵사지·축제장을 5분 간격으로 순환 운영하는 셔틀버스와 익산IC를 통해 들어오는 외지 방문객들을 위한 보석박물관·축제장을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배치해 관광과 축제를 연계했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3대를 배치해 미륵사지에서 서동공원까지 편의를 제공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공정·투명한 절차 통한 사업 수행을”

###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7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정을 추진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우리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관광 명소이며 군산 발전의 교두보”라며 “살기 좋은 여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시행하였고 윤석열 정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어촌·어항 300개소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하여 어촌의 경제플랫폼과 생활플랫폼을 조성하고 어촌의 안전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금년 1월 군산시는 장지도·선유도·관리도, 그리고 무녀도·신시도·

아미도를 묶은 2개 권역이 여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자립형 어촌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 권역당 4년간 100억원, 총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본 사업에서는, 총괄 PM(Project Manager) 역할을 수행할 여촌 앵커조직을 잘 선정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군산시가 이런 앵커조직을 모집하고 평가하고 선정할 과정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공모 과정을 보면 2022년 9월 22일, 군산시 홈페이지에만 모집공고를 슬쩍 올리고 그도 모자라 공모 당일부터 단 2주만인 10월 6일에 접수를 마감하여 단 두 곳 결과적으로 각 권역별 딱 하나씩 민간업체가 지원했고 이후 절차는 다이상 볼 것 없다는 듯, 두 업체를 선정했다”며 “엄연히 공고문에는 3배수 내의 팀을 선정해 평가한다고 하고 참여 기업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추가 공모를 하겠다고 버젓이 써 있었지만 이 문구는 그저 허울 좋은 장식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진행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전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신청해 수산물종합센터가 선정됐다.

이번 환급행사는 상시행사로 진행되며 전국 전시장 수요 조사를 받아 30개 시장 중 7개 시장을 선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시범 진행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상시진행과 더불어 특별진행으로 연말까지 대대적인 행사가 펼쳐진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지역대학들과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 원광대·원광보건대, 상생 협업 평생교육 컨소시엄 협약 체결



익산시가 수준높은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을 위해 지역 대학들과 협력한다.

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2개 대학교와 전북시민대학 익산캠퍼스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정현을 익산시장과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원광보건대학교 백준홍 총장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지자체와 대학교가 연계하여 익산시민의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전북시민대학 익산캠퍼스 운영사업은 도가 정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분계획(23~27년) 추진에 맞춰 지자체와 대학교가 연계, 도민에게 평생학습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시는 전라북도에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어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적극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평생교육 관련 우수 교수진과 인프라를 가진 대

학교가 대표 평생학습도시 익산시와 함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뜻 깊다”고 밝혔다.

백준홍 원광보건대학교 총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평생 행복한 도시 익산을 함께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 서은식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7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어심은 땅(earth)과 현재진행형(ing)의 합성어로, 지구와 우리 몸을 접촉함으로써 지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흡수하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우리 몸을 땅과 밀착시키는 것으로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행위를 말한다”며 “어심은 일조권처럼 건강을 위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는 아니지만,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는 앞다투어 맨발 걷기 산책로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추세다”며 “방송사와 포항시보건설사가 맨발과 신발 걷기의 비교 실험한 검사 자료에 의하면 협안·혈액순환

촉진·근육량 증가 등 8가지 항목에서 맨발로 걸었을 때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맨발 걷기를 통한 의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맨발 걷기 산책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맨발 걷기 산책로 정비가 잘된 지자체로 사람들이 모여들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사례를 보면 전주 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도화하였고, 순창군은 산도적으로 2005년 강천산 군립공원 산책로 중 2.25km 구간을 황토로 포장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군산시는 군산 명소들을 연결한 다양한 10개의 구불길이 있고 그 중 청암산·월명호수·은파호수 산책로는 뱀나무·관백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와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지면을 걸을 수 있는 힐링 장소로 소개되며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타 시·군에 있는 편의시설 설치 등 요구하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농업·농촌·식품 산업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익산시가 농업·농촌과 식품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미래 청사진의 밑그림을 그린다.

시는 7일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명예농업시장, 미래농정 정책자문단 및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2024~2028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를 박사가 용역 추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정리하고 과업 수행 방향 등에 대한 설명, 미래농정정책자문단, 정책심의위원,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건설·산업기계 연구용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

군산시는 지난 6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시험평가 인증센터에서 국내 최초 건설·산업기계 연구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범수 수소경제정책과장,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전라북도 오택림 미래산업국장,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장영재 경제항민혁신국장 및 연구기관, 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14톤급 건설 중장비용 수소연료전지 파워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3.9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계실과 제어동, 수소 튜브 트레일러 보관동 등을 구축했다.

수소 건설기계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검증기술개발 및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 확산 및 수소건설·산업기계를

비롯한 비도로형 특수 장비 등 자동차의 모빌리티 연구개발 및 평가·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 연구용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친환경 건설·산업기계 연구 개발 및 실증이 확대되어 관련산업 집적화와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